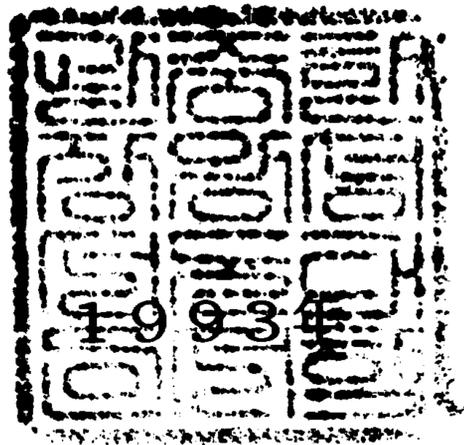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學父母의 社會階層에 따른 教育觀에  
관한 研究

- 서울 시내 國民學校 學父母를 대상으로 -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柳 錦 孝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環 培

學父母의 社會階層에 따른 教育觀에  
관한 研究

- 서울 시내 國民學校 學父母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According to  
Parents' Social Stratification

1993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柳 錦 孝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璟 培

學父母의 社會階層에 따른 教育觀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According to  
Parents' Social Stratification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柳 錦 孝

柳錦孝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目次

I. 序論 .....	1
1. 研究의 必要性 .....	1
2. 研究의 目的 .....	2
3. 研究의 内容 .....	2
4. 研究의 制限點 .....	2
5. 用語의 定義 .....	3
II. 理論的 背景 .....	5
1. 社會階層 .....	5
1) 社會階層의 概念 .....	5
2) 社會階層의 分類 .....	7
2. 教育觀 .....	10
1) 教育觀의 概念 .....	10
2) 教育觀에 관한 先行研究 .....	11
III. 研究의 問題 .....	14
IV. 研究의 方法 .....	15
1. 標集對象 .....	15
2. 測定道具 .....	15
3. 資料處理 .....	16

V.	研究結果 및 解釋 .....	20
1 .	教育의 本質的인 것에 관한 理解面 .....	20
2 .	學校運營에 관한 面 .....	26
3 .	教育現實에 대한 知覺面 .....	31
4 .	子女教育에 관한 視覺的 側面 .....	35
VI.	要約 및 結論 .....	44
1 .	要約 .....	44
2 .	結論 .....	45
	參 考 文 獻 .....	47
	附 錄 .....	51
	英 文 抄 錄 .....	59

## 表 目 次

〈표-1〉 Warner의 社會階層 分類基準 .....	8
〈표-2〉 I. S. C. 점수에 따르는 社會계층 구분 .....	8
〈표-3〉 Kahl의 階層變數의 分類 .....	9
〈표-4〉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15
〈표-5〉 領域別 選定된 要因數 .....	16
〈표-6〉 社會階層 區分 .....	17
〈표-7〉 학부모의 社會계층별 분석 .....	17
〈표-8〉 社會階層分類 基準表 .....	18
〈표-9〉 직업분류 기준표 .....	19
〈표-10〉 社會계층별 성공 결정요인 인식 .....	20
〈표-11〉 社會계층별 생활방식관 .....	21
〈표-12〉 社會계층별 자녀교육 기대수준 .....	22
〈표-13〉 학교교육을 통하여 원하는 자녀의 인간상 .....	23
〈표-14〉 社會계층별 진학동기에 대한 가치의식 .....	24
〈표-15〉 학교교육에서 치중하여 가르쳐야할 내용 .....	25
〈표-16〉 교사의 아동에 대한 체벌 문제 .....	26
〈표-17〉 체벌효과에 대한 인식 .....	27
〈표-18〉 교사의 가정방문에 대한 생각 .....	28
〈표-19〉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필요성 .....	29

<표-20>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양	29
<표-21>	남녀교사가 학생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30
<표-22>	학부모가 기대하는 이상적 교사상	31
<표-23>	개인 능력과 필요에 따른 현재의 교육실태	32
<표-24>	사회계층별 교육기대수준의 제약요인	33
<표-25>	사회계층별 학업성적 결정요인	34
<표-26>	학교교육방침에 대한 기대	35
<표-27>	사회계층별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면	36
<표-28>	사회계층별 자녀교육 지도방침	37
<표-29>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인식(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의 증대)	38
<표-30>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인식(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위향상)	38
<표-31>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인식(심리적 측면에서의 개인만족)	39
<표-32>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교실당 학생수의 과다한 점)	40
<표-33>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개별지도 부족)	41
<표-34>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학생 학부모 요구 무반영)	42
<표-35>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42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사람들은 敎育이 올바른 인간형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敎育觀을 가지면서도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는 敎育을 사회적·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敎育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는 각 개인들의 내부에 葛藤을 일으킬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敎育은 원래가 올바른 인간형성을 위해 마련된 가장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회계층간의 이동을 꾀하는 수단으로 간주됨으로서 社會階層의 간격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기능적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사회의 계층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계층간의 생활양식, 기대수준, 가치기준 등이 다양하므로 敎育觀과 現實知覺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敎育현장에 심각한 問題點을 던져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급변하는 社會속에서 생활수준의 向上과 社會經濟的構造의 변화과정에서 학부모의 社會階層間的 敎育觀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자는 학부모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자녀敎育觀의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敎育觀이 子女敎育이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學父母의 社會階層에 따른 敎育觀의 차이를 모색할 필요성에서 본 주제를

연구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보다 구체적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의 社會階層을 분류해 보고
- 2) 社會階層에 따른 教育觀의 차이를 알아 보며
- 3) 教育의 目的달성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 3. 研究의 內容

本 研究의 內容은 학부모의 生活程度, 經濟的 能力, 教育程度, 職業 등에 따라서 자녀의 教育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教育의 효과를 높이고 학부모의 教育觀을 알아 보는데에 있다.

## 4. 研究의 制限點

- 1) 本 研究의 표집대상은 서울시 6개 국민학교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 2) 本 研究는 여러가지 教育觀의 영역 중에서 ① 教育의 本質的인 것에 관한 理解面 ② 學校運營에 관한 面 ③ 教育現實에 대한 知覺面 ④ 子女 教育에 관한 視覺的 側面 등의 4가지 영역에 국한하였으므로 총체적인 教育觀에 대하여 충분한 代表性을 갖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3) 조사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서울시 학부모의 사회계층을 가급적 고르게 표집할 수 있도록 계층지역을 세곳을 선정하여 표집하였으나 사회계층 분류 기준은 연구자의 임의적 근거에 의한 분류이므로 이러한 면에서 사회계층 분류의 일반성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

4) 本 研究에서 사용된 檢査道具는 研究者가 自作한 것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 5. 用語의 定義

### 1) 社會階層

각 개인이 갖는 社會的 地位나 세력의 정도에 의하여 제삼자와 구별되는 다소간에 인위적 분류로, 비교적 가벼운 뜻에서의 상하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의 연속적 전체속에 設定된 단계적 구분을 말한다. 어떤 사회에나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서로 자유로이 왕래하고 교제하며, 이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는 비슷한 관습,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정도도 비슷하다.

### 2) 教育觀

교육관은 개인간, 집단(계층)간, 지역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個人內에서도 갈등,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觀의 주체가 어떠한 사회관계속에 위치하느냐에 그 의미구성은 달라질 수 있고, 현실과 주체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이해관계, 대응전략, 결과의 보상등에 따라 일관성있는 통합된 의미의 구성화는 어려운 특성을 갖고있다.<sup>1)</sup>

1) 李宗宰외, 「韓國人的 教育觀」, (서울:韓國教育開發院, 1980), P. 48.

그러므로 개인이 현실속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은 현실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면 교육에 대한 가치의식과 상황의식의 차이는 教育意思 決定行爲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계층별 교육관의 差도 나타날 것이 豫想된다

本 研究는 이와같은 입장에서 教育觀을 “개인이 교육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견해”로 규정하고 여기에는 價値에 대한 기준과 現實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행위선택과 연결되어 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개념에서 학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관을 探索해 보려는 것이다.

## II. 理論的 背景

### 1. 社會階層

#### 1) 社會階層의 概念

社會成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사회계층이라고 한다. 社會階層은 각 개인이 갖는 社會的 地位나 세력의 정도에 의하여 계층자와 구별되는 다소간에 인위적 분류로, 비교적 가벼운 뜻에서의 상하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의 연속적 전체속에 設定된 단계적 구분을 말한다. 어떤 사회에나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서로 자유로이 왕래하고 교제하며, 이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는 비슷한 관습,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정도도 비슷하다. 이러한 집단을 社會階層이라 한다.<sup>2)</sup>

社會階層은 개인의 經濟的, 社會的 또는 文化的 조건을 기준으로 사회집단을 의식적으로 분절하려는 사회학적 개념인데, 사회계층은 부나 교육이나 직업적인 지위에 따라 비교적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회인끼리 구분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한 社會階層을 이루는 집단의 성원들은 가치, 태도, 행동 또는 정신적 경향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면에 걸쳐 공통점이 있다.<sup>3)</sup>

Warner에 의하면 어떤 사회에도 社會階層은 存在하며, 사회계층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집단 구성원의 인정과 용인에 의하여 정해지며, 어떠한 사회에도 행동양식이나 생활태도에 있

---

2) 金英宇, 「教育社會」, (서울: 創學社, 1986), P. 181.

3) K. W. Prichard, Concepts and Theor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鄭字鉉譯, 「教育社會學」, (서울: 高大出版社, 1975), PP. 83-84.

어 늘 과거와 혈통을 중심으로 사는 상층과 미래에 희망을 두고 사는 중층 그리고 현재에 사는 하층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sup>4)</sup>

한 社會는 역사적으로 존속해 내려 오면서 그 사회나름의 어떤 차별적인 평가의 기준에 따라 성원들에게 차별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社會에는 결국 어떤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하나의 社會的 不平等體系 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社會의 이같은 위계적인 社會的 不平等體系 를 어떤 기준에 따라 잘랐을 때 거의 동일한 또는 비슷한 위치들을 점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그 각각의 덩어리를 사회계층이라 하고, 한 社會의 의 이같은 계층의 배열 또는 구성의 상태를 가리켜 계층구조라고 말한다.

P.L Berger에 의하면 계층의 개념은 어떤 社會든지 그 社會는 권력, 특 전, 위신의 면에서 지배와 종속의 관점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여러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계층은 모든 사회가 하나의 位階秩序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어떤 계층은 높은 위계에 속하고, 또 어떤 계층은 낮은 위계에 속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합친 총체가 특정 사회의 계층 체계를 형성한다.<sup>5)</sup> 결국 “계층과 계층구조는 그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구조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조작적이며 방편적인 개념이자 분석 수단인 것이다.”<sup>6)</sup>

사회계층의 의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4) 金善鎬, 「社會와 敎育」, (서울:宣明文化社, 1961), P. 66.

5) P.L. Bergr, 韓完相譯, 「사회학에의 초대」, (서울:現代思想社, 1977), P. 109.

6) 韓國社會科學研究會編, 「韓國社會論」, (서울:民音社, 1980), P. 78.

7) 金善鎬, 前掲書, P. 65.

첫째, 社會階層은 사람의 모든 行動을 좌우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즉, 계층에 따라 행동상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둘째, 社會階層은 사회의 현실을 밝혀주고, 社會의 유일한 社會構造를 나타낸다.

셋째, 社會階層構造는 사회인을 분발시키고, 노력하게 하는 매력을 가진다.

## 2) 社會階層의 分類

社會階層은 사회에 따라 그 형태나 구조가 동일하지 않고 階層分類도 다양하여 한 사회에서의 구분이 다른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一般化가 어렵고 상대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계층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과학적인 基準(Criteria)이 있어야 하고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 지역사회의 유형이나 크기에 따라 달라야 한다.<sup>8)</sup>

社會階層을 분석하는 接近方法에는 주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 및 평판적 접근법 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主觀的 接近法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자기 평가로 알아보는 방법인 바, 사회성원의 귀속의식에 의하여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사회계층을 分析하는 方法이다. 客觀的 方法은 사람의 社會的 地位를 나타내는 직업.학력.수입.재산 등 측정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여 계층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評判的 接近方法은 사회의 成員들이 서로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각자의 소속 계층을 판정하는 방법이다.<sup>9)</sup>

8) 朱樂元, 「社會學概論」, (서울:藝文館, 1984), P. 203.

9) 金英宇, 前掲書, P. 187.

Warner 등은 1949년에 社會階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사회신분지표지수(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회계층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 있다. 그가 사용한 분류기준은 <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6項目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점수를 배정하여 이에 따라 피조사자의 총 Score를 계산한 결과 6점에서 10점 사이는 上流層, 11점에서 18점까지는 中流上層 등으로 구분하여 < 표- 2 >와 같이 분류하였다.<sup>10)</sup>

< 표- 1 > Warner의 社會階層 分類基準

- 
- 
- ① 職業의 種類 ( Occupation )
  - ② 教育水準 ( Level of Education )
  - ③ 收入額 ( Amount of Income )
  - ④ 收入源 ( Source of Income )
  - ⑤ 居住家屋形態 ( Type of House )
  - ⑥ 居住地域 ( Dwelling Area )
- 

< 표- 2 > I. S. C. 점수에 따르는 사회계층 구분

社 會 階 層	階層特性指標(I. S. C.)점수
上流層 (Upper Class)	6 - 10 點
中流上層 (Upper Middle Class)	11 - 18 點
中流下層 (Lower Middle Class)	19 - 26 點
下流上層 (Upper Lower Class)	27 - 31 點
下流下層 (Lower Lower Class)	32 - 42 點

10) W.Lloyd Warner, Marchia Meeker, and Kenneth Eells, Social Class in America, (Chicago:Science Research Associates, 1949), P.12.

한편 J. A. Kahl은 분류의 기준으로 다음의 < 표- 3 >과 같이 6가지 계층변수를 들고 있다.<sup>11)</sup>

< 표- 3 > Kahl의 階層變數의 分類

- 
- ① 個人的 威勢 ( Personal Prestige )
  - ② 職業 ( Occupation )
  - ③ 財産 ( Possessions )
  - ④ 他人과의 相互作用 ( Interaction )
  - ⑤ 階級意識 ( Class Consciousness )
  - ⑥ 價値性向 ( Value Orientations )
- 

우리나라의 경우도 高永復은 직업, 교육, 수입이 階層分化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였으며<sup>12)</sup>, 金泳謨의 사회계층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평가에 의한 계층분류의 기준을 보면 재산, 학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이고, 그 다음이 직업, 수입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sup>13)</sup>

이상과 같이 社會階層을 분류하는 요소에 관한 研究를 종합하여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① 수입, ② 학력, ③ 직업을 가장 적절한 사회계층 평정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직업, 교육, 수입이 계층분류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고<sup>14)</sup>, 계층구분도 분류기준에 의거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諸階層을 한데 묶어 上, 中, 下層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11) Joseph A. Kahl, The American Class Structure, (N.Y.: Rinehart & Company Inc, 1957), PP. 8-10.

12) 高永復, 「現代社會學」(서울: 法文社, 1972), P. 211.

13) 金泳謨, “서울市の 社會階層과 階級構造에 관한 研究”,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서울: 乙酉文化社, 1969), P. 606.

14) 高永復, 前掲書, P. 211.

## 2. 教育觀

### 1) 教育觀의 概念

교육은 모든 父母가 그 대부분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人間됨의 基礎確立에 부모의 역할이 至大한 것이라고 한다면 教育觀의 정립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本 研究에서 교육관이라 함은 價値觀中에서 교육에 관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가치관 즉 교육가치관이며 教育이라는 특별한 작용과 행위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다. 그러므로 가치관과 교육관은 外延과 內包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sup>15)</sup>고 하였다.

李宗宰는 교육관을 교육현실에 대한 主觀的 意味構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관적 의미구성은 두가지 측면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 첫째는 價値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狀況에 대한 인식으로써, 교육관은 교육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식된 가치의식, 교육에 비추어진 像,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평가의식, 교육상황에 대처하는 전략 등이 복합된 주관적 교육개념인 것이다.<sup>16)</sup>

李敦熙는 교육관을 교육행위의 全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선택과 판단의 基準體制라고 정의하여 교육관은 교육이 志向하여야 할 방향선택에 있어서의 가치의식과 신념으로써 판단기준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7)</sup>

15) 朴俊熙, 「韓國人的 教育觀」, (서울:實學社, 1975), P. 28.

16) 李宗宰外, 前掲書, P. 46-47.

17) 李敦熙, “教育觀의 變化와 課題,” 「社會科學의 政策研究」, 第7卷, 第3號,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5), P. 120.

李仁孝는 교육관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즉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교육관을 '世上과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형성된 그리고 社會的 經驗을 통하여 해석된 學校教育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하고 교육관의 구성요소로는 한 개인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 문화의 교육에 대한 가치규범, 그 사회제도가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役割期待, 개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교육현상에 대한 지각 등을 들고 있다.<sup>18)</sup>

이상과 같이 교육관에 대한 개념규정은 學者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本 연구에서의 教育觀이란 教育의 目的, 教育內容, 教育의 過程 등에 관한 가치의식의 총체이며, 가치관과 교육관은 서로 外延과 內包의 관계로 이해되는 관계이다라고 정의한다.<sup>19)</sup>

## 2) 教育觀에 관한 先行研究

本 研究와 직접 관계있는 先行研究를 분석한 결과중 크게 관련있는 내용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朴俊熙의 연구는 교육관을 教育目的에 對한 價値指向에 국한하여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 연구한 것으로써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0)</sup>

- ① 韓國人은 교육관의 주류가 형성되지 못한 채 혼란 상태를 보이고 있다.
- ② 韓國人은 국가주의나 봉사주의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 ③ 父母들은 자녀가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능력있는 인간이 되어 주기를

18) 李仁孝, "教育觀의 類型, 葛藤 및 行動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서울大 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P. 14.

19) 金璟培, "學父母의 社會階層에 따른 教育觀에 關한 研究"(延世大學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P. 12.

20) 朴俊熙, 前掲書, PP. 311-317.

바란다.

④ 都市人은 현실주의, 실용주의, 적응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다.

朴俊熙의 研究는 교육관을 자녀교육 목적관과 자녀교육 가치관으로 한정 하였으므로 학교교육의 목적, 가치있는 교육내용, 교사상 등에 대한 교육관은 다루지 않았다.

李宗宰外의 연구는 교육관을 크게 機能論과 葛藤論에 의하여 유형화하고 유형을 집단내의 갈등과 사회, 경제적 숙성간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1)</sup>

① 韓國人의 본성은 善하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회보다는 人間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란다.

② 韓國人이 생각하는 인간상은 주체적 인간, 도덕적 인간이며 학교교육도 이런 인간의 교육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③ 教育內容은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④ 教師像은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성이 잘 갖춰진 교사를 원한다.

李宗宰外의 연구는 교육관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이념이나 목적으로서의 교육관이 아닌 現實狀況에 對한 인식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 점에서 특징적이고 本 研究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李仁孝의 研究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교육관의 유형을 유교적 교육관, 사회적 교육관, 개인적 교육관, 인간적 교육관으로 선정하고 각 교육관의 葛藤行動에 대한 규제력을 알아 보기 위한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2)</sup>

① 教育에 對한 價値觀은 일반적으로 인간적 교육관이 가장 높고 개인적

21) 李宗宰外, 全揚書, PP.162-165.

22) 李仁孝, 全揚書, PP.53-55.

교육관이 가장 낮다.

- ② 教育現實에 對한 知覺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각과 개인적 지각이 높고 유교적 지각과 인간적 지각이 낮다.
- ③ 教育 價値觀과 教育의 現實知覺 사이의 격차는 일반적으로 인간적 교육관의 격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유교적 교육관의 격차가 크다.
- ④ 教育的인 事態에서의 行動은 일반적으로 유교적 행동과 개인적 행동의 점수가 높고 사회적 행동과 인간적 행동의 점수는 낮다.

이상의 研究들을 綜合하여 볼 때 教育觀의 연구는 각 영역에서 고르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가 규범적 판단과 실제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교육관 형성에 작용하는 개인 즉, 학부모의 규범적 판단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現實的狀況, 認識, 知覺體制 등의 실제적 판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 Ⅲ. 研究의 問題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교육관이 서울시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를 設定하였다.

<問題 1> 학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教育의 本質的인 것에 관한 理解面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問題 2> 학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學校運營에 관한 기대와 요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問題 3> 학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教育現實에 대한 知覺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問題 4> 학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子女의 教育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 IV. 研究의 方法

### 1. 標集對象

本 研究의 대상은 서울시 학부모의 사회계층 배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우선 계층 지역을 3곳 선정(경합, 비경합, 준특수 지역)하여 그 지역에 위치한 국민학교 중 2개교에서 각각 2개학급을 無選標集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600매 중 574매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한 응답을 보인 2매를 제외한 572매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 표-4 >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학교 구분	경합지구		비경합지구		준특수지구		계	회수율 %			
	K국교	N국교	N국교	U국교	G국교	B국교					
배 부	50	50	50	50	50	50	50	600	100		
회 수	49	50	47	49	50	50	49	45	43	574	95.7
유효자료	49	49	47	49	50	50	48	45	43	572	95.3

### 2. 測定道具

- 1) 質問紙를 통한 조사연구로 질문지는 연구자가 直接 作成하여 사용하였다.
- 2) 質問紙 形式은 選擇型으로 하였다.

- 3) 質問紙 内容은 學父母의 階層分類를 위한 배경을 알기 위해 6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 4) 教育觀을 알아 보기 위한 항목을 26문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 표-5 >                    領域別로 選定된 要因數

領 域	要 因 數
· 個人 變因	6
· 教育의 本質的인 것에 관한 理解面	6
· 學校運營的인 面	6
· 教育現實에 대한 知覺面	5
· 子女教育에 관한 視覺的 側面	9

### 3. 資料處理

#### 1) 社會階層 分類

本 研究의 社會계층 분류 기준은 중앙교육연구소가 MOZEL-HILL의 분류방법을 적용 제작한 것을 朴鍾根<sup>23)</sup>, 金慶淵<sup>24)</sup>, 尹乘澤<sup>25)</sup> 이 수정 적용한 계층분류 기준에 2.1.2.2.3의 비중을 두고 I.S.C의 각 내용을 6단계로 분류하여 6.5.4.3.2.1의 배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총점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층분류 하였다.

23) 朴鍾根, “社會階層 및 父母의 態度類型에 따른 兒童의 創意力에 관한 研究”(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P.27.

24) 金慶淵, “社會階層別 子女教育 態度에 관한 研究”(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P.33.

25) 尹乘澤, “學父母의 社會階層別 教育觀에 대한 分析的 研究”(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6.

< 표-6 >                      社會階層 區分

사 회 계 층	득 점 범 위
· 상류층 (Upper -Class)	25 ≤ X ≤ 33
· 중류층 (Middle-Class)	14 ≤ X ≤ 24
· 하류층 (Lower -Class)	7 ≤ X ≤ 13

I.S.C중 직업분류는 < 표-9 >를 적용하였으며 주택은 국토개발연구원이 한국주택은행 연구용역 사업으로 실시한 “住宅金融強化方案에 관한 研究”<sup>26)</sup>에 제시한 서울의 주택가격 기준표를 근거로 내용을 분류하고, 수입은 한국통계월보 8월호의 「都市勤勞者 家口當 月平均 家計收支」<sup>27)</sup>를 근거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표집된 사회계층 분석은 다음과 같다.

< 표-7 >                      학부모의 사회계층별 분석

계 층 구 분	상 류	중 류	하 류	전 체
수 비 율 (%)	90 (15.7)	390 (68.2)	92 (16.1)	592 (100)

## 2) 質問紙 處理

자료의 통계처리는 계층별로 반응정도를 집계하고 期待價値(Expected Value)를 산출하여 Chi-Square( $x^2$ )방법으로 계층별 차이를 검증하고 또 社會階層別 教育觀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白粉率을 산출하였다.

26) 國土開發院, “住宅金融強化方案에 관한 研究”(서울:國土開發院, 1987), p. 178.

27)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 8月(서울:經濟企劃院, 1987), p. 94.

< 표-8 >

社會階層分類 基準表

基準指標要因	비중	내용	배점	점수범위
1. 직 업	2	< 표-9 > 적용	6-1	2×1~6 = 2-12
2. 주 택	2	① 3억원 이상 ② 2억원-3억원 미만 ③ 1억5천만원-2억원 미만 ④ 1억원-1억5천만원 미만 ⑤ 5천만원-1억원미만 ⑥ 5천만원 미만	6 5 4 3 2 1	2×1~6 = 2-12
3. 수 입 (월평균수입)	1	① 251만원 이상 ② 201만원 - 250만원 ③ 151만원 - 200만원 ④ 101만원 - 150만원 ⑤ 51만원 - 100만원 ⑥ 50만원이하	6 5 4 3 2 1	1×1~6 = 1~6
4. 문 화 시 설 ①승용차 ②에어콘또는VTR ③피아노 ④욕실수세식변 소 ⑤전화 ⑥세탁기	2	①①~⑥ 모두 있다. ②①~②중 하나의 모두 있다. ③①②③중 두개의 모두 있다. ④①②③④중 세개의 모두 있다. ⑤①②③④의 1~2개 있다. ⑥ 모두 없다.	6 5 4 3 2 1	2×1~6 = 2~12
5. 교 육 정 도	3	① 대학원 졸업 ② 대학졸, 대학원 중퇴 ③ 전문대졸, 대학중퇴 ④ 고졸, 전문대 중퇴 ⑤ 중졸, 고등학교 중퇴 ⑥ 국졸, 중 중퇴	6 5 4 3 2 1	3×1~6 = 3~18
		계		10~60

※ 자료 : “高等學校의 學校差에 관한 研究”, 중앙교육연구소, 1962.

< 표-9 >

직업분류 기준표

※ 자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제작, 1980.

직업 배점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수산업	노동
6	법관, 변호사 교수(부), 의사 논설위원 계리사	기업주(중, 대) 중역, 군장성 3급공무원 이상					
5	목사(대) 예술가, 교장 교육구청장 장학사 기공(고등)	대기업가 부장, 중형 은행대리 5급공무원 이상		도매점주(대)			
4	목사(소) 기공(중) 교사(중등) 약제사 한의사(대)	중소기업과장 대위이상 차주(1-3대 소유)	공무원(6, 7급) 회사원(중소) 은행원(출납)	도매점(중)	파출소주임	농장주(대) 과수원주(대)	
3	교사(초등) 한의사(소)		공무원(8, 9급) 회사원(소기업) 조합서기	소매점주(대) 고용점원(대) 외무사원(대)	순경	농장주(중, 소) 과수원(중, 소) 선주(대)	기술공
2				고용점원(중) 소매점주(중) 외무사원(중)		자작농 선주(중, 소)	기능공 운전공 목수(주)
1				구멍가게 행상 고용점원(소) 외무사원(소)	수위, 소사 배달원 경비원 방법대원	영세농민 화전민 소형선원	목수(고용) 미장이 품팔이 강 부 미숙련공

## V. 研究結果 및 解釋

本 研究는 첫째 教育의 本質的인 것에 관한 理解面, 둘째 學校運營에 관한 面, 셋째 教育現實에 대한 知覺面, 넷째 子女教育에 관한 視覺的 側面 등은 社會계층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教育의 本質的인 것에 관한 理解面

1)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는데 어느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10 >과 같다.

< 표-10 >                      社會계층별 성공 결정요인 인식                      N=570

성공요인 계층	근면 성실	배경	운수나 기회	학력	자신의 노력	금력	계
상	25 (4.4)	14 (2.5)	1 (0.2)	11 (1.9)	36 (6.3)	2 (0.4)	89 (5.6)
중	81 (14.2)	104 (18.2)	2 (0.4)	44 (7.7)	138 (24.2)	20 (3.5)	389 (68.2)
하	13 (2.3)	34 (6.0)	5 (0.9)	10 (1.8)	23 (4.0)	7 (1.2)	92 (16.1)
전체	119 (20.9)	152 (26.7)	8 (1.4)	65 (11.4)	197 (34.6)	29 (5.1)	570 (100)

$$x^2=30.845 \quad df=10 \quad p<0.001$$

앞의 < 표-10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0.845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9.588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성공요인으로서 상류층은 자신의 노력(6.3%), 근면 성실성(4.4%) 등을 가장 큰요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중류층은 자신의 노력(24.2%), 배경(18.2%), 하류층은 배경(6.0%), 자신의 노력(4.0%)을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류층은 개인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과 근면 성실함을 증시하는 반면에, 하류층에서는 자신의 노력보다는 배경을 앞세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2)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미래의 기약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11 >과 같다

< 표-11 > 사회계층별 생활방식관 N=566

생활관 계층	현재 지향	미래 지향	계
상	26 (4.6)	62(11.0)	89(15.7)
중	134(23.7)	251(43.3)	387(68.4)
하	27 (4.8)	63(11.1)	90(15.9)
전체	187(33.0)	376(66.4)	566(100)

$$x^2 = 3.771 \quad df = 6 \quad p > 0.05$$

이상의 < 표-11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771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상류층(11.0%), 중류층(43.3%), 하류층(11.1%) 모두 높게 반응하고 있다.

3) 사회계층별로 자녀를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키고 싶은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12 >와 같다.

< 표-12 > 사회계층별 자녀교육 기대수준 N=571

교육수준 계층	초·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외국유학	계
상	1 (0.2)	0 (0.0)	1 (0.2)	36 (6.3)	22 (3.9)	29 (5.1)	89 (15.6)
중	0 (0.0)	2 (0.4)	8 (1.4)	222 (38.9)	104 (18.2)	54 (9.5)	390 (68.3)
하	0 (0.0)	2 (0.4)	5 (0.9)	69 (12.1)	12 (2.1)	4 (0.7)	92 (16.1)
전체	1 (0.2)	4 (0.7)	14 (2.5)	327 (57.3)	138 (24.2)	87 (15.2)	571 (100)

$$x^2=53.738 \quad df=10 \quad p<0.001$$

위의 < 표-12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53.738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9.588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므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다는 요인으로 상류층(6.3%), 중류층(38.9%), 하류층(12.1%) 모두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다음으로 상류층(9.5%)은 외국유학에 반응하였고, 중류층(18.2%), 하류층(2.1%)은 대학원교육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대수준은 일반적으로 사회계층 차를 막론하고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13 >과 같다.

< 표-13 > 학교교육을 통하여 원하는 자녀의 인간상 N=571

인간상 계층	경제적인 능력	스스로의 운명개척	지식·실력 지위·명예	좋은 인성 근면·성실	계
상	0 (0.0)	9 (1.6)	4 (0.7)	75 (13.1)	89 (15.6)
중	2 (0.4)	57 (10.0)	37 (6.5)	294 (51.5)	390 (68.3)
하	4 (0.7)	12 (2.1)	4 (0.7)	72 (12.6)	92 (16.1)
전체	6 (1.1)	78 (13.7)	45 (7.9)	441 (77.2)	571 (100)

$$x^2=22.834 \quad df=8 \quad p<0.01$$

위의 < 표-13 >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2.834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0.090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첫째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풍부한 인간성을 갖고 근면, 성실한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13.1%), (51.5%), (12.6%)이 되기를 원하였으며, 두번째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1.6%), (10.0%), (2.1%)에 대하여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원하는 요인에 대하여 상류층(0.0%)과 하류층(0.7%)과의 다소간의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5) 자녀를 상급학교에 까지 진학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 표-14 >와 같다.

< 표-14 > 사회계층별 진학동기에 대한 가치의식 N=572

진학동기 계층	좋은직업 상류생활	훌륭한 인물	국민적 소양·인격	지식 기술 사회적응력	계
상	7 (1.2)	4 (0.7)	9 (1.6)	70 (12.2)	90 (15.7)
중	44 (7.7)	22 (3.8)	56 (9.8)	268 (46.9)	390 (68.2)
하	13 (2.3)	2 (0.3)	15 (2.6)	62 (10.8)	92 (16.1)
전체	64 (11.2)	28 (4.9)	80 (14.0)	400 (69.9)	572 (100)

$$x^2 = 5.897 \quad df = 6 \quad p > 0.05$$

위의 < 표-14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5.89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학동기에 대한 가치의식이 사회계층별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상급학교 진학 목적이 종래의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점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획득을 위한 것과는 달리 지식 기술을 갖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12.2%), (46.9%), (10.8%)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국민적 소양과 인격 등으로 진학동기에 대한 가치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학교교육은 주로 무엇에 치중하여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 표-15 >와 같다.

< 표-15 > 학교교육에서 치중하여 가르쳐야할 내용 N=571

내용 계층	창의적 사고 판단	인격형성 생활교육	조화롭게 사는방법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계
상	54 (9.5)	29 (5.1)	7 (1.2)	0 (0.0)	90 (15.8)
중	215 (37.7)	131 (22.9)	27 (4.7)	16 (2.8)	389 (68.1)
하	47 (8.2)	36 (6.3)	2 (0.4)	7 (1.2)	92 (16.1)
전체	316 (55.3)	196 (34.3)	36 (6.3)	23 (4.0)	571 (100)

$$x^2=11.047 \quad df= 6 \quad p> 0.05$$

위의 < 표-15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1.04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에 약간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교육에서 가르쳐야할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계층별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요인에 가장 낮은 반응(0.0%), (2.8%), (1.2%)을 보인 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내용에 가장 높게 반응(9.5%), (37.7%), (8.2%)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려된다.

## 2. 學校運營에 관한 面

1) 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교사가 벌을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16 >과 같다.

< 표-16 >                      교사의 아동에 대한 체벌 문제                      N=571

응답 계층	동의함	반대함	잘 모르겠음	계
상	81(14.2)	6 (1.1)	3 (0.5)	90(15.8)
중	353(61.8)	18 (3.2)	19 (3.3)	390(68.3)
하	86(15.1)	1 (0.2)	4 (0.7)	91(15.9)
전체	520(91.1)	25 (4.4)	26 (4.6)	571(100)

$$x^2 = 3.890 \quad df = 4 \quad p > 0.05$$

위의 < 표-16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89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별 모두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14.2%), (61.8%), (15.1%)을 보여주고 있어서 교사의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 학교에서 나타나는 체벌의 실태를 사회계층별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17 >과 같다.

< 표-17 >

체벌효과에 대한 인식

N=563

계층	내용	적절하여 교육적 효과	과도하여 역효과	벌을 주지않아 방치됨	계
상		43 (7.6)	5 (0.9)	41 (7.3)	89(15.8)
중		218(38.7)	17 (3.0)	148(26.3)	383(68.0)
하		61(10.8)	6 (1.1)	24 (4.3)	91(16.2)
전체		322(57.2)	28 (5.0)	213(37.8)	563(100)

$x^2 = 8.367$      $df = 4$      $p > 0.05$

위의 < 표-17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8.36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에 다소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회계층별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교육적 효과에 응답율(7.6%), (38.7%), (1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제대로 벌을 주지 않아서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요인(37.8%)도 역효과 요인(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3)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18 >과 같다.

다음 < 표-18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5.671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18 >

교사의 가정방문에 대한 생각

N=571

가정방문 계층	필요함	필요없음	잘 모르겠음	계
상	42 (7.4)	27 (4.7)	21 (3.7)	90(15.8)
중	192(33.6)	101(17.7)	96(16.8)	389(68.1)
하	48 (8.4)	15 (2.6)	29 (5.1)	92(16.1)
전체	282(49.4)	143(25.0)	146(25.6)	571(100)

$$x^2 = 5.671 \quad df = 4 \quad p > 0.05$$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계층 모두 공통적으로 교사의 가정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첫번째 반응(49.4%)을 보이고 있다. 계층별로 보면 가장 낮은 반응으로서 잘 모르겠다라는 요인에 상류층이 4.7%, 중류층이 17.7% 반응하였고, 이에 반하여 필요없다는 요인에 하류층이 2.6%의 반응을 보인 점은 주목할만 하다.

4)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9 >와 같다.

다음 < 표-19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6.80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5.50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계층간의 별다른 차이가 없이 과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요인과 다소 필요하다는 요인에 긍정적인 반응(83.2%)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매우 불필요하다는 요인에 하류층의 반응(0.0%)은 하류층이 상대적으로 과제를 더 많이 원한다고 볼 수 있겠다.

< 표-19 >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필요성

N=571

입장 계층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계
상	45 (7.9)	34 (6.0)	6 (1.1)	4 (0.7)	1 (0.2)	90 (15.8)
중	200 (35.0)	129 (22.6)	47 (8.2)	11 (1.9)	2 (0.4)	389 (68.1)
하	39 (6.8)	28 (4.9)	23 (4.0)	2 (0.4)	0 (0.0)	92 (16.0)
전체	284 (49.7)	191 (33.5)	76 (13.3)	17 (3.0)	3 (0.5)	571 (100)

$x^2=16.805$      $df= 8$      $p< 0.05$

5)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20 >과 같다.

< 표-20 >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양

N=569

과제의 양 계층	매우 많음	다소 많음	적당함	다소 적음	매우 적음	계
상	1 (0.2)	15 (2.6)	54 (9.5)	17 (3.0)	3 (0.5)	90 (15.8)
중	10 (1.8)	52 (9.1)	226 (39.7)	84 (14.8)	16 (2.8)	388 (68.2)
하	2 (0.4)	11 (1.9)	60 (10.5)	15 (2.6)	3 (0.5)	91 (16.0)
전체	13 (2.3)	78 (13.7)	340 (59.8)	116 (20.4)	22 (3.9)	569 (100)

$x^2= 3.488$      $df= 8$      $p> 0.05$

앞의 < 표-20 >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488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5.507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제의 양에 대하여 사회계층간에 별다른 차이없이 적당하다는 요인에 긍정적인 반응(59.8%)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과제의 양에 대하여 원하는 요인들이 다소 적음(20.4%), 다소 많음(13.7%), 매우 적음(3.9%), 매우 많음(2.3%)의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6) 학생들의 성격변화에 교사의 성별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21 >과 같다.

< 표-21 > 남녀교사가 학생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N=571

영향 계층	차이 있음	차이 없음	잘 모르겠음	계
상	67(11.7)	18 (3.2)	5 (0.9)	90(15.8)
중	215(37.7)	96(16.8)	74(13.0)	389(68.1)
하	36 (6.3)	30 (5.3)	25 (4.4)	92(16.1)
전체	318(55.7)	144(25.2)	104(18.2)	571(100)

$$x^2=26.287 \quad df= 6 \quad p<0.001$$

위의 < 표-21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6.287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2.457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교사의 성별이 학생들의 성격변화에 영향을 미친다(55.7%)고 보고 있으며 특히, 상류층의 반응이 하류층에 비하여 더욱 높았다.

### 3. 敎育現實에 대한 知覺面

1) 敎사의 어떤 모습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인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 < 표-22 >와 같다.

< 표-22 > 학부모가 기대하는 이상적 敎사상 N=571

내용 계층	실력과 지도력	교육자적 신념	예절·도덕 인생의 틀	깊은 관심과 사랑의 지도	계
상	4 (0.7)	22 (3.9)	18 (3.2)	46 (8.1)	90 (15.8)
중	48 (8.4)	75 (13.1)	76 (13.3)	190 (33.3)	389 (68.1)
하	13 (2.3)	15 (2.6)	15 (2.6)	49 (8.6)	92 (16.1)
전체	65 (11.4)	112 (19.6)	109 (19.1)	285 (49.9)	571 (100)

$$x^2 = 7.111 \quad df = 6 \quad p > 0.05$$

위의 < 표-22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7.111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회계층간의 공통적 특성으로 훌륭한 선생님의 모습을 실력과 지도력요인(11.4%)보다는 敎사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지도(49.9%)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수준까지 敎育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23 >과 같다.

< 표-23 > 개인 능력과 필요에 따른 현재의 교육실태 N=571

교육실태 계층	능력과 필요 에 따른 교육	그렇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
상	47 (8.2)	38 (6.7)	5 (0.9)	90(15.8)
중	179(31.3)	169(29.6)	39 (6.8)	389(68.1)
하	32 (5.6)	44 (7.7)	15 (2.6)	92(16.1)
전체	258(45.2)	251(44.0)	59(10.3)	571(100)

$$x^2 = 9.872 \quad df = 6 \quad p > 0.05$$

위의 < 표-23 >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9.872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능력과 필요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요인에 상류층과 중류층이 각각 8.2%, 31.3%로 긍정적 반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나, 하류층은 그렇지 않다(7.7%)는 부정적요인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하고 있는 면에 주목할 만하다.

3) 교육기대수준의 제약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 < 표-24 >와 같다.

다음 < 표-24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6.184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6.12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24 >

사회계층별 교육기대수준의 제약요인

N=551

내용 계층	경제적 능력부족	신체허약	공부하기 싫어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	계
상	20 (3.6)	3 (0.5)	62 (11.3)	4 (0.7)	89 (16.2)
중	161 (29.2)	8 (1.5)	189 (34.3)	15 (2.7)	374 (67.9)
하	58 (10.5)	1 (0.2)	29 (5.3)	0 (0.0)	88 (16.0)
전체	239 (43.4)	12 (2.2)	280 (50.8)	19 (3.4)	551 (100)

$$x^2=36.184 \quad df= 8 \quad p<0.001$$

위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이유로 상류층(11.3%), 중류층(34.3%)은 공부하기 싫어해서의 요인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나, 이에 반하여 하류층(10.5%)은 경제적 능력부족의 요인에 높은 반응을 보인 점을 알 수 있다.

4) 어느 요인이 학업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25 >와 같다.

다음 < 표-25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3.59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8.307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계층별로 모두 본인의 노력(85.2%)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가정경제 요인에 상류층(0.0%)의 반응은 경제

적 지위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사려된다.

< 표-25 > 사회계층별 학업성적 결정요인 N=570

요인 계층	지능 지수	가정 경제	본인 노력	교사의 지도력	학교의 분위기	부모 관여도	계
상	2 (0.4)	0 (0.0)	83 (14.6)	1 (0.2)	2 (0.4)	2 (0.4)	90 (15.8)
중	10 (1.8)	9 (1.6)	332 (58.5)	19 (3.3)	11 (1.9)	7 (1.2)	388 (68.3)
하	2 (0.4)	4 (0.7)	69 (12.1)	6 (1.1)	4 (0.7)	5 (0.9)	90 (15.8)
전체	14 (2.5)	13 (2.3)	484 (85.2)	26 (4.6)	17 (3.0)	14 (2.5)	568 (100)

$$x^2=13.596 \quad df=10 \quad p> 0.05$$

이상의 결과는 앞의 개인의 성공 결정요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볼 때 비슷한 결과로서 매우 흥미있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상류층 학부모들 일수록 개인의 행동 및 책임은 그 스스로에 있다는 개인 환원성의 개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학교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가장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 < 표-26 >과 같다.

다음 < 표-26 >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57.064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6.12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26 >

학교교육방침에 대한 기대

N=567

요인 계층	전인 교육	실력 향상	정서 함양	신체 건강	특기 지도	취업 지도	계
상	66 (11.6)	6 (1.1)	14 (2.5)	0 (0.0)	3 (0.5)	1 (0.2)	90 (15.9)
중	186 (32.8)	82 (14.5)	84 (14.8)	0 (0.0)	37 (6.5)	0 (0.0)	389 (68.6)
하	18 (3.2)	31 (5.5)	27 (4.8)	0 (0.0)	11 (1.9)	1 (0.2)	88 (15.5)
전체	270 (47.6)	119 (21.0)	125 (22.0)	0 (0.0)	51 (9.0)	2 (0.4)	567 (100)

$\chi^2=57.064$      $df= 8$      $p<0.001$

위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상류층(11.6%), 중류층(32.8%)은 전인교육에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하류층(5.5%)은 실력향상에 높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중류층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으므로 자녀가 그 계층에 적응될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덕성 함양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하류층은 우선 계층상승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교육임을 인식한데서 실력향상을 중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4. 子女教育에 관한 視覺的 側面

1)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를 지도할 때 어떤 태도로 지도하는가 즉 아동과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 표-27 >과 같다.

< 표-27 > 사회계층별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면 N=564

계층	권 위 형	민 주 형	계
상	41 (7.3)	49 (8.7)	90(16.0)
중	147(26.1)	238(42.2)	386(68.4)
하	34 (6.0)	54 (9.6)	88(15.6)
전체	222(39.4)	341(60.5)	564(100)

$$x^2 = 2.153 \quad df = 4 \quad p > 0.05$$

위의 < 표-27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153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27 >에서 전체 경향은 민주형(60.5%), 권위형(39.4%)으로 민주형에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사회계층 모두 공통적 특성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자녀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데서 오는 결과로 해석된다.

2) 학부모들이 자녀의 발전을 위한 지도방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 표-28 >과 같다.

다음 < 표-28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7.191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助力型(90.9%)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계층별로도 助力型이 상류층(14.4%), 중류층(62.5%), 하류층(13.0%) 모두 가장 높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들 대부분이 助力型의 자녀 지도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관과 유사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 표-28 >                      사회계층별 자녀교육 지도방침                      N=568

생각 계층	助力型	放任型	濫愛型	干涉型	계
상	82 (14.4)	0 (0.0)	0 (0.0)	8 (1.4)	90 (15.8)
중	355 (62.5)	6 (1.1)	3 (0.5)	26 (4.6)	390 (68.7)
하	74 (13.0)	2 (0.4)	2 (0.4)	10 (1.8)	88 (15.5)
전체	511 (90.0)	8 (1.4)	5 (0.9)	44 (7.7)	568 (100)

$$x^2 = 7.191 \quad df = 6 \quad p > 0.05$$

3) 사회계층별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 인식으로서 교육 수혜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측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 < 표-29 >, < 표-30 >, < 표-31 >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 대한 효과로서는 다음 < 표-29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7.954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5.507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29 >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인식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의 증대)  
N=569

경제적 계층 측면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잘 모르겠다	조금 그 렇지않다	매우 그 렇지않다	계
상	17 (3.0)	59 (10.5)	3 (0.5)	9 (1.6)	2 (0.4)	90 (16.0)
중	85 (15.2)	235 (41.9)	28 (5.0)	27 (4.8)	10 (1.8)	385 (68.6)
하	23 (4.1)	44 (7.8)	10 (1.8)	7 (1.2)	2 (0.4)	86 (15.3)
전체	125 (22.3)	338 (60.2)	41 (7.3)	43 (7.7)	14 (2.5)	561 (100)

$x^2 = 7.954$        $df = 8$        $p > 0.05$

< 표-30 >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인식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향상)  
N=569

사회적 계층 측면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잘 모르겠다	조금 그 렇지않다	매우 그 렇지않다	계
상	33 (5.9)	53 (9.4)	3 (0.5)	1 (0.2)	0 (0.0)	90 (16.0)
중	185 (33.0)	163 (29.1)	17 (3.0)	17 (3.0)	3 (0.5)	385 (68.6)
하	27 (4.8)	37 (6.6)	12 (2.1)	9 (1.6)	1 (0.2)	86 (15.3)
전체	245 (43.7)	253 (45.1)	32 (5.7)	27 (4.8)	4 (0.7)	561 (100)

$x^2 = 31.773$        $df = 8$        $p < 0.001$

사회적 측면에 대한 효과로서는 위의 < 표-30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1.773으로 나타나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6.12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리적 측면에 대한 효과로서는 다음 < 표-31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3.575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0.090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31 >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인식 (심리적 측면에서의 개인만족)  
N=559

심리적 계층 측면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잘 모르겠다	조금 그 렇지않다	매우 그 렇지않다	계
상	34 (6.1)	48 (8.6)	4 (0.7)	3 (0.5)	1 (0.2)	90 (16.1)
중	141 (25.2)	167 (29.9)	42 (7.5)	26 (4.7)	6 (1.1)	382 (68.3)
하	19 (3.4)	40 (7.2)	21 (3.8)	5 (0.9)	2 (0.4)	87 (15.6)
전체	194 (34.7)	255 (45.6)	67 (12.0)	34 (6.1)	9 (1.6)	559 (100)

$x^2=23.575$      $df= 8$      $p< 0.01$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표-29 >에서 경제적 부의 증대는 조금 그렇다(82.8%) 이상, < 표-30 >에서 사회적 지위향상은 조금 그렇다(88.8%) 이상, < 표-31 >에서 심리적 만족감은 조금 그렇다(80.3%)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보통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개인만족을 높여 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사회계층간의 공통된 특성으로 교육이 경제, 사회, 심리적 가치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사회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입시부정이나 과열경쟁 등을 유발시키는 결과로 해석된다.

4)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에 관한 네가지 문항의 질문 결과는 다음 < 표-32 >, < 표-33 >, < 표-34 >, < 표-35 >와 같다.

< 표-32 >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교실당 학생수의 과다한 점)  
N=559

내용 계층	매우 심각함	조금 심각함	보통임	별로심각 하지않음	전혀심각 하지않음	계
상	23 (4.1)	44 (7.9)	23 (4.1)	0 (0.0)	0 (0.0)	90 (16.1)
중	98 (17.5)	180 (32.2)	84 (15.0)	16 (2.9)	5 (0.9)	383 (68.5)
하	20 (3.6)	33 (5.9)	25 (4.5)	7 (1.3)	1 (0.2)	86 (15.4)
전체	141 (25.2)	257 (46.0)	132 (23.6)	23 (4.1)	6 (1.1)	559 (100)

$$x^2=11.435 \quad df=8 \quad p> 0.05$$

학급당 인원과다 수용면에서는 위의 < 표-32 >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1.43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5.507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지도 부족면에서는 다음 < 표-33 >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실제로 얻어진  $\chi^2$ 의 값이 7.56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5.507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33 >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개별지도 부족) N=558

내용 계층	매우 심각함	조금 심각함	보통임	별로심각 하지않음	전혀심각 하지않음	계
상	39 (7.0)	38 (6.8)	10 (1.8)	2 (0.4)	0 (0.0)	89 (15.9)
중	136 (24.4)	174 (31.2)	56 (10.0)	13 (2.3)	4 (0.7)	383 (68.6)
하	30 (5.4)	37 (6.6)	11 (2.0)	6 (1.1)	2 (0.4)	86 (15.4)
전체	205 (36.7)	249 (44.6)	77 (13.8)	21 (3.8)	6 (1.1)	558 (100)

$$\chi^2 = 7.560 \quad df = 8 \quad p > 0.05$$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면에서는 다음 < 표-34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chi^2$ 의 값이 8.25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5.597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면에 있어서는 다음 < 표-35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chi^2$ 의 값이 20.682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0.09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34 >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학생 학부모 요구 무반영)

N=552

내용 계층	매우 심각함	조금 심각함	보통임	별로심각 하지않음	전혀심각 하지않음	계
상	17 (3.1)	37 (6.7)	29 (5.3)	6 (1.1)	0 (0.0)	89 (16.1)
중	56 (10.1)	143 (25.9)	151 (27.4)	25 (4.5)	4 (0.7)	379 (68.7)
하	8 (1.4)	29 (5.3)	36 (6.5)	10 (1.8)	1 (0.2)	84 (15.2)
전체	81 (14.7)	209 (37.9)	216 (39.1)	41 (7.4)	5 (0.9)	552 (100)

$x^2=8.255$        $df= 8$        $p> 0.05$

< 표-35 >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N=564

내용 계층	매우 심각함	조금 심각함	보통임	별로 심각 하지 않음	전혀 심각 하지 않음	계
상	46 (8.2)	39 (6.9)	3 (0.5)	1 (0.2)	0 (0.0)	89 (15.8)
중	230 (40.8)	115 (20.4)	32 (5.7)	5 (0.9)	5 (0.9)	387 (68.6)
하	44 (7.8)	26 (4.6)	16 (2.8)	2 (0.4)	0 (0.0)	88 (15.6)
전체	320 (56.7)	180 (31.9)	51 (9.0)	8 (1.4)	5 (0.9)	564 (100)

$x^2=20.682$        $df= 8$        $p< 0.01$

이상의 < 표-32 >, < 표-33 >, < 표-34 >, < 표-35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계층 모두 공통적 특징으로써 매우 심각하다는 요인과 조금

심각하다는 요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학급당 인원과다수용(71.2%), 개별지도부족(81.3%), 학생·학부모 요구 무반응(52.6%),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88.6%)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방침에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계층은 학부모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과 점수에만 관심이 있는 점에 관하여 매우 심각하다는 요인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상류층의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들이 하류층에 비하여 다소 높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줌과 아울러 학교교육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의 바람으로도 해석되어 진다. 또한 그릇된 교육관에 대한 높은 반응들은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인격형성, 학교교육제도 운영면, 교육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 자녀교육에 대한 시각 등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VI. 要約 및 結論

### 1. 要約

本 研究는 우리나라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의 向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부모의 社會階層에 따른 교육관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추진되었다. 학부모의 사회계층별 교육관의 분석 방법은 教育觀을 네가지 영역별 要因으로 세분하여 26개 問項別로 분석을 하였는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오늘날 대부분의 學父母들은 민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생활방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지식·기술을 익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시키는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2) 學校教育에서는 教師가 학생에 대한 과제 및 체벌을 가함에 있어 학부모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계층에 따른 유의한 차는 없었다.

3)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교육환경면, 교육방침면, 행정적인 면 등은 계층에 따른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약간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

4) 學父母의 子女教育 기대수준에서는 社會階層간의 공통된 특성으로 대학교 이상의 진학을 96.7%가 원하고 있었다.

5) 個人의 成功決定要因에 대한 인식에서 상류층은 자신의 노력을 첫째로

생각하는 반면에, 하류층은 환경적요인인 배경에 응답하고 있어서 계층간에 의견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 2. 結論

本 研究의 결과에서 나타난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의 결과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의 증대를 가져오고,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심리적 측면에서 개인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學校運營에서 교사의 체벌은 모든 계층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家庭訪問은 각 계층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류층 일수록 그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사가 부과하는 課題의 必要性에 있어서는 사회계층간에 별다른 차이 없이 과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성을 나타냈고, 오히려 하류층이 상대적으로 과제를 더 많이 원하였다.

셋째, 子女의 學業成績의 決定要因으로 각 계층은 주로 본인의 노력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이할만한 것은 상류층의 경우 가정경제 요인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學校教育方針에 대한 기대로서 상류·중류층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안정된 지위에 있으므로 자녀의 훌륭한 인격과 덕성 함양을 바라고 있으나, 하류층은 실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教育의 機會均等に 대하여 그 실현정도를 상류·중류층은 긍정

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류층은 부정적 요인에 반응을 한점은 아직도 하류층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여섯째, 學校教育에 대한 問題意識으로 제기한 교육환경, 교육방침, 교육행정, 교육관 등에 대하여 학부모의 각 階層은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학교교육의 여러 측면에 대한 改善을 필요로 하고 있다.

# 參考文獻

## 1. 韓國文獻

-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8월호, 서울 : 經濟企劃院, 1987.
- 高永復, 「社會學要論」, 서울 : 民潮社, 1966.
- , 「現代社會學」, 社會學講義叢書, 서울 : 法文社, 1976.
- 國土開發研究院, “住宅金融強化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 國土開發研究院, 1987.
- 權彝鍾, 「教育社會學」, 서울 : 培英社, 1986.
- 金璟培, “學父母의 社會階層에 따른 教育觀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 金慶淵, “社會階層別 子女教育態度에 관한 研究,” 啓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 金炳聲, 「教育社會學: 學校社會의 探究」, 서울 : 良書院, 1988.
- 金善鎬, 「社會와 教育」, 서울 : 宣明文化社, 1961.
- 金億煥, 「教育社會學」, 서울 : 建國大學校 出版部, 1983.
- 金泳模, “서울市の 社會階層과 階級構造에 관한 研究,” 「金載元博士回甲 記念論叢」, 서울 : 乙酉文化社, 1969.
- 金英宇, 「大學全書 教育社會」, 서울 : 圖書出版 創學社, 1986.
- 金仁會·丁淳陸, 「韓國文化와 教育」,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4.
- , 「教育이란 무엇인가」, 서울 : 大恩出版社, 1985.

- 金宗書外, 「最新教育學概論」, 서울 : 教育科學社, 1988.
- 金鍾喆外六人, 「教師論」, 서울 : 教育科學社, 1983.
- 金興圭, 「教育社會學」, 서울 : 螢雪出版社, 1988.
- 金彩潤·張夏眞譯, 「社會階層論」, 서울 : 三英社, 1982.
- 文仁元·崔熙善, 「新版 教育社會學」, 서울 : 螢雪出版社, 1987.
- 朴鍾根, “社會階層 및 父母의 態度類型에 따른 兒童의 創意力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 朴俊熙, 「韓國人的 教育觀:比較文化的 考察」, 實學社, 서울 : 1976.
- 裴天雄外, 「韓國人的 教育觀 分析」, 서울 : 教育開發院, 1981.
- 卞烘圭, 「教育學概論」, 서울 : 學文社, 1983.
- 孫仁洙, 「韓國人的 價值觀」, 서울 : 文音社, 1979.
- 安商元, 「韓國西洋教育史 新講」, 서울 : 螢雪出版社, 1983.
- 尹秉澤, “學父母의 社會階層別 教育觀에 대한 分析的 研究,” 建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 李敦熙, “教育觀의 變化와 課題,” 「社會科學의 政策研究」(第7卷 第3號),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1.
- 李仁孝, “教育觀의 類型 葛藤 및 行動과의 關聯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 李宗宰外, 「韓國人的 教育觀」,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80.
- 李亨行, 「教育學概論」, 서울 : 良書院, 1988.
- 張眞鎬, 「教育和 社會」, 서울 : 實學社, 1977.
- 鄭範模, 「價值觀과 教育」, 서울 : 培英社, 1973.

- 鄭範模·鄭元植, 「教育和國家發展」, 서울 : 教育出版社, 1986.
- 丁淳睦·孫仁洙·車東守, 「新教育制度導入과 教育觀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朱樂元, 「社會學概論」, 서울 : 藝文館, 1984.
- 陳元重, 「教育社會學原論」, 서울 : 法文社, 1984.
- 車京守, 「現代의 教育社會學」, 現代教育學叢書 32, 서울 : 學文社, 1986.
- , 「産業社會의 教育問題」, 서울 : 培英社, 1977.
- 崔定雄, 「教育和社會論」, 서울 : 教育科學社, 1988.
- 崔中玉, 「教育社會」, 서울 : 教育科學社, 1988.
- 韓國通信教育研究會, 「教育社會學」, 서울 : 文鍾書館, 1977.
- 韓國社會科學研究會編, 「韓國社會論」, 서울 : 民音社, 1980.
- 韓基彥, 「教育觀의 確立」, 서울 : 能力開發社, 1979.
- 韓完相譯, 「사회학에의 초대」, 서울 : 現代思想社, 1977.
- 黃稔奎, “情意的 行動特性, 社會階層, 學校政策의 因果關係,” 師大論文集  
(第2輯), 서울 : 高麗大學校 師範大學, 1977.
- 黃宗建, 「教育社會學」, 서울 : 螢雪出版社, 1984.

## 2. 外國文獻

Dahrendorf, Ral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an Industrial Society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59).

Kahl, Joseph A., The American Class Structure(N.Y:Rinehart & Company

Inc., 1957).

Prichard, Keith W. & Buxton, Thomas H., Concepts and Theorie in

Sociology of Education(Lincoln Nabraskai Professional Educa-

tion, Inc., 1973).

Warner, W.Lloyd, Meeker, Marchia and Eells, Kenneth, Social Class in

America(Chicago:Science Research Associates, 1949).

< 附 錄 >

## 질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연구자의 학문연구에 긴요한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여 학교 교육의 실천 및 개선에 도움이 되고 학문연구에 긴요한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된 내용은 학문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체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중에 끝까지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 9 3 년 3 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전공

류 금 호 올림

## < 기초자료조사 >

※ 다음 해당되는 번호에 V 표나 말을 써 주십시오.

1. 귀하(가장)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쓰되 없으면 "없음"이라 써주십시오)  
( )
2. 귀하(가장)의 학력은?  
( ) ①국졸, 중학교 중퇴                      ( ) ②중졸, 고등학교 중퇴  
( ) ③고졸, 전문대학 중퇴                      ( ) ④전문대졸, 4년제대학 중퇴  
( ) ⑤대학졸, 대학원 중퇴                      ( ) ⑥대학원 졸업
3. 귀하의 월평균 수입(봉급, 이자, 기타수입 포함)은 어느정도입니까?  
( ) ①50만원 이하                              ( ) ②51만원 - 100만원  
( ) ③101만원 - 150만원                      ( ) ④151만원 - 200만원  
( ) ⑤201만원 - 250만원                      ( ) ⑥251만원 이상
4. 다음중 귀하의 가정에 있는 것에 모두 V표하여 주십시오.  
( ) ①세탁기              ( ) ②전화              ( ) ③목욕탕, 수세식 변소  
( ) ④피아노              ( ) ⑤승용차              ( ) ⑥에어콘 또는 VTR
5. 귀하(가장)의 집은?  
( ) ①자기집              ( ) ②전세              ( ) ③삿월세
6.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라면 시중가격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 ①5천만원 미만                              ( ) ②5천만원 - 1억원 미만  
( ) ③1억원 - 1억5천만원 미만              ( ) ④1억5천만원 - 2억원 미만  
( ) ⑤2억원 - 3억원 미만                      ( ) ⑥3억원 이상

## < 교육관조사 >

다음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을 골라 번호의 ( )안에 V 표하여 주십시오.

1.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는데에는 다음중 어느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①근면과 성실성	( ) ②배 경
( ) ③운수나 기회	( ) ④학 력
( ) ⑤자신의 노력	( ) ⑥금 력
2.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 입장중 어느쪽에 동의하십니까?  

( ) ①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산다.
( ) ②현재보다는 불확실하지만은 미래를 기약하고 산다.
3. 귀하의 자녀를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키고 싶은지 다음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①국민학교	( ) ②중학교
( ) ③고등학교	( ) ④전문대학
( ) ⑤대학교	( ) ⑥대학원
( ) ⑦외국유학	

4. 귀하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중 가장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①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 ( ) ②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나가는 사람
  - ( ) ③지식이나 실력을 갖춰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진 사람
  - ( ) ④풍부한 인간성을 갖고 근면, 성실한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
5. 귀하의 자녀를 상급학교(또는 대학교)까지 교육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중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①좋은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 ) ②훌륭한 인물을 만들기 위하여
  - ( ) ③국민으로서의 소양과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 ( ) ④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6. 학교 교육은 주로 무엇에 치중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①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내용
  - ( ) ②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생활교육
  - ( ) ③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
  - ( ) ④장래의 직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및 기술

7. 귀하는 학교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동의한다.
- ( ) ②반대한다.
- ( ) ③잘 모르겠다.

8. 현재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①벌을 적절히 사용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 ( ) ②벌이 과도하여 학생에게 역효과를 내고 있다.
- ( ) ③학교에서 제대로 벌을 주지 않아서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방치하고 있다.

9. 귀하는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필요하다.
- ( ) ②필요없다.
- ( ) ③잘 모르겠다.

10. 귀하는 학교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매우 필요하다.
- ( ) ②다소 필요하다.
- ( ) ③보통이다.
- ( ) ④다소 불필요하다.
- ( ) ⑤매우 불필요하다.

11. 학교 선생님이 부과하는 과제의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매우 많다.
- ( ) ②다소 많다.
- ( ) ③적당하다.
- ( ) ④다소 적다.
- ( ) ⑤매우 적다.

12. 남·여교사가 학생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그렇다.

( ) ②그렇지 않다.

( ) ③잘 모르겠다.

13. 귀하는 어떤 모습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①지도과목에 대한 실력이 풍부하며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

( ) ②교육자로서 깨끗한 신념을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

( ) ③예절, 도덕 등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 ) ④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는 선생님

1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실지 귀하의 생각은?

( ) ①그렇다.      ( ) ②그렇지 않다.      ( ) ③잘 모르겠다.

15. 만약 원하는 수준까지 교육시키기 어렵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①교육비 부담의 경제적 능력 부족 때문에

( ) ②신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 ) ③공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 ) ④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16. 다음중 어떤 요인이 학업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지능지수    | <input type="checkbox"/> ②가정의 경제사정  |
| <input type="checkbox"/> ③본인의 노력  | <input type="checkbox"/> ④선생님의 지도기술 |
| <input type="checkbox"/> ⑤학교의 분위기 | <input type="checkbox"/> ⑥부모의 관여도   |

17. 학교교육에 가장 바라고 싶은 교육방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전인교육 | <input type="checkbox"/> ②실력향상 | <input type="checkbox"/> ③정서함양 |
| <input type="checkbox"/> ④신체건강 | <input type="checkbox"/> ⑤특기지도 | <input type="checkbox"/> ⑥취업지도 |

18. 귀하는 아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아동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지도하고 아동은 따라야 한다.
- ②아동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19. 귀하는 학부모로서 자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중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지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가능한한 자녀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도와(조언)준다.
- ②자녀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 ③자녀가 희망하는 것은 모두다 들어준다.
- ④자녀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한다.

다음 해당하는 난에 V 표를 하나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20 - 26)

※. 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용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잘 모 르겠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 경제적 측면에서 부의 증대를 가져온다.					
21.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향상을 가져온다					
22. 심리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가져온다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정도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까?

내 용	① 매우 심각 하다	② 조금 심각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심각치 않다	⑤ 전혀 심각치 않다
23. 한 교실에 50명 정도 가르치고 있는점					
24.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지도하지 않는점					
25. 학교 교육방침에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점					
26.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부족과 점수에만 관심 있는점					

#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According to Parents' Social Stratification

Ryu, Keum - Hyo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 I. THE PURPOSE OF STUDY

This study attempted to survey and analyze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parents' social stratification and to know of the parents' own educational perspectives and of the real difference between their educational perspectives.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ultimately this study aims at closing a gap between the practical educa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 future.

### II. THE CONTENTS OF STUD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nsist of the analytical aspects concerning educational perspectives according to parents' social stratification as follows : ① the intrinsic of education, ②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 on schools, ③ perception of educational practice and ④ perception of education on children.

### III. THE RESULTS OF STUDY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bles of 4 aspects concerning educational perspectives afore-mentioned by III. The results of being analyzed by 26 it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oday most parents greatly hope that their children should be educated to be able to have the full ability for adapt themselves to society as persons who have not only diligent faithfulness but also knowledge and technology gained from their endless efforts by way of democratic life which has the future-oriented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also they recognize highly that the results of such education will make their children grow richness in view of economy, let them upgrade social status in view of society and have them take individual satisfaction in view of psychology.

2. While most parents have positive perspectives on the homework and corporal punishment by teachers under the education of school, they show negative responses very much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incorrect perspectives of education etc. which come into question.

As far as the educational questions are concerned, it seems that the upper group do researchees belong to, the more serious responses have they and it is shocked to know of the fact that the lower group attribute an individual success to his background, prior to his own efforts.

3. Common characteristics of all social stratifications show that 96.7 percentage of all the researchees want to go to school over college or university. This fact show us a culmination of parents' aspiration for education today in Korea and is partly thought to outcome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unlawful entrance examination of college or university etc..

In this context, it is likely that a main element of promoting social stratification in Korea should be educatio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it is remarkably meaningful to mention that restricted variables of the level of educational expectation toward children shown as the responses by the lower group are mainly short of economical capabilities and also the lower group has considerable negatives of the degree of realization concerning educational opportunity, to the contrary to the upper - middle groups.